

A close-up photograph of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with many delicate white petals and visible stamens.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통권 제 197호

장남. 라 00943

2564
2020

03

아름다운 세상
자비선업장에서
본명상과 깨달음 2



디딤돌
금수산 고찰 정방사



결말에 담긴 이야기
어디에 있는가?

우드다라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버리는 서원으로 수행하라

성취서원 보다 버리는 서원이 나으니라.

애착, 탐욕, 나쁜 습관 등을 버리는 것이 더욱 좋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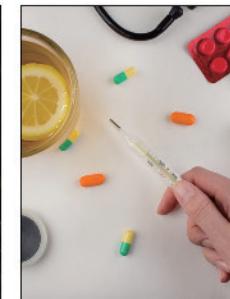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마중물 10

수행을 하면
용수 스님



살다보면 20

선업과
악업의 경계
이옥경



십선성취 44

우리 서당
남혜 정사

2564
2020
03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0 산책

32 아름다운 세상

36 마음의 등불

40 지혜의 뜨락

44 십선성취

48 씨앗 한 알

52 디딤돌

56 생활 속 식물이야기

60 백유경

62 차향기

66 걸망에 담긴 이야기

68 독자기고

70 동행

72 뜻 바루기

74 되짚어 보기

76 컬리링 만다라세상

지관방문止觀雙運 회령 정사

수행을 하면 용수 스님

공중도덕 법경 정사

선업과 악업의 경계 이옥경

가정 신행 서령 정사

뻔히 알면서도 김대곤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2 묘원화 전수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익평

미스&미스터 트롯에 빠지다 방귀의

우리 서당 남예 정사

상대를 평가하는 대로 내 삶이 경험된다 법상 스님

꽃향기 가득한 만화방초 자성 전수

점이 이어져 선이 되다네프롬레피스-Sword fern 이태용

자기 허물을 모르는 사람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1부 김정애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법일 정사

부처님께 가는 길 여순애

스토브리그stove league 이선희

오상성신관五相成身鏡-증금강신証金剛身, 불신원만관佛身圓滿鏡④ 김재동

아수라阿修羅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꽃이 핀들 봄이련가

-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지난 겨울은 눈도 꽂이려니 昨冬雪如花

이번 봄날엔 꽃도 눈이련가 今春花如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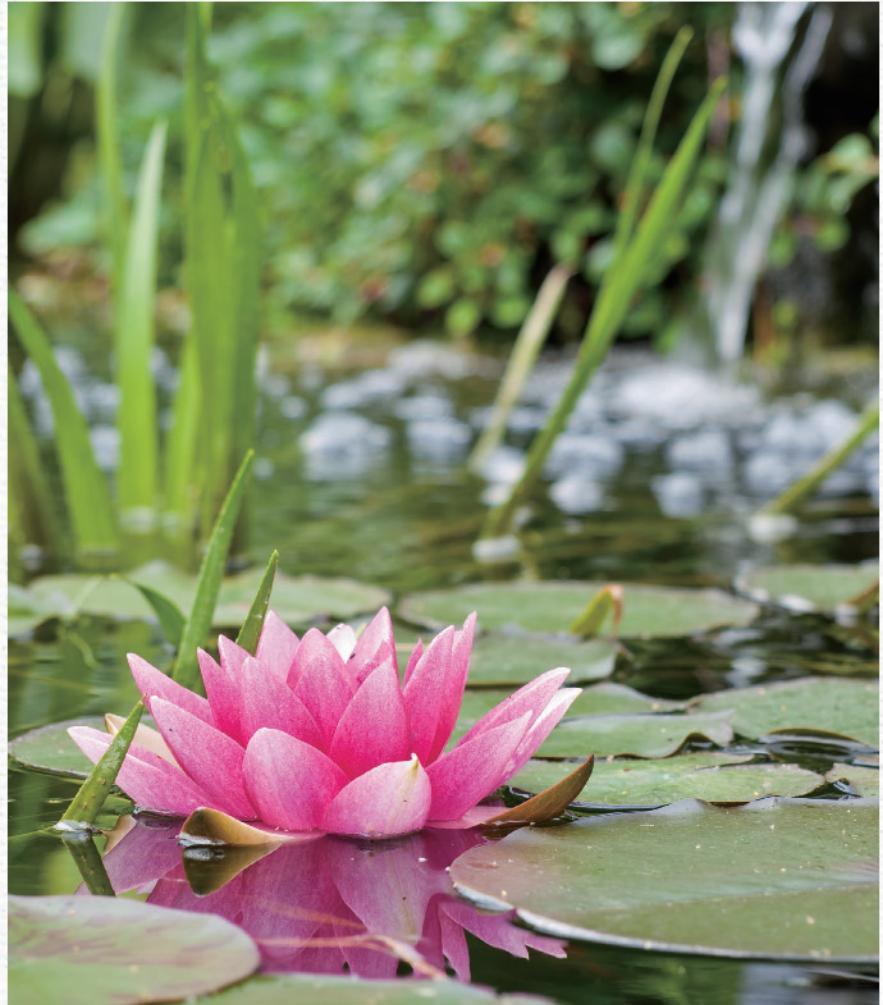
눈이야 꽃이야 모두 참이 아니건만 雪花共非真

어찌하여 이 마음 찢어지려 하는가 如何心欲裂



지관쌍운止觀雙運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불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선정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가 하면 이를바 지관균등止觀均等의 선정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지관균등의 선정에 의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가장 잘 얻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정에는 지止와 관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의 선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정의 종류 가운데서 사마타samata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요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한 곳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의 선정이라는 것은 위빠싸나vipa yata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를 가지고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의 정에 의하여 고요해진 마음으로 대상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것이 관의 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상하는 것을 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에 의해서 고요해진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지는 번뇌를 차단하는 것과 같고, 관은 번뇌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는 잡초를 움켜쥐는 것과 같고, 관은 그렇게 움켜쥔 잡초를 낫으로 베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지와 관을 균등하게 사용하여 지혜를 자아내고 번뇌를 끊는 것을 지관쌍운止觀雙運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

적인 정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자관균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이 자관균등의 상태에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팔정도의 정정^{正量}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정에서 지의 상태가 너무 깊어지면 마음의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하여 기절상태와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관의 상태가 너무 깊어지면 마음이 이것저것을 살피다고 산란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바쁜 지혜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자관균등의 선정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관균등의 이상적인 선정을 색계의 사선정에 두고 있습니다. 즉 색계^{色界} 초선정에서 제이선, 제삼선, 제사선정의 네 단계의 선정을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인 제사선^{第四禪}이 가장 뛰어난 자관균등의 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선정을 사정려^{四捨離}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알라라 칼라마와 웃다카 라마풋드라의 결을 떠나 독자적으로 개척한 선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실 때에도 사선정 가운데의 제사선^{第四禪}의 상태에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anuttarā samyak-sambodhi}를 얻으시고 또 육신통을 구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누다라삼막삼보리는 무상정 등각^{無上等覺}을 말합니다. 즉,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입멸하실 때에도 제사선^{第四禪}에 머물러 입멸하셨다고 합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웃다카 라마풋드라는 선정으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지에 치우친 선정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과로움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와 관의 정에서 어느 것이 더 깊은 단계의 선정인가하면 역시 지의 쪽이 더 깊은 단계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의 정은 무색계의 정에 속하고 관의 정은 색계의 정에 속하기 때문에 지의 정이 더 깊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낮은 단계에서 점차 깊은 단계의 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관의 정에서 지의 정으로 옮겨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덮여 있던 욕계의 우리의 마음이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욕망을 배제한 색계의 사선정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깊어지면 무색계의 정에 들 수 있습니다.

무색계의 정에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정에 해당됩니다. 멸진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멀하고 마음이 완전히 정지하여 소멸해버린 상태와 같은 참된 무념무상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의 깊이에 따라 색계 사선과 무색계의 네 가지 단계, 그리고 멸진정을 포함하여 아홉 단계의 선정을 구차제정九次第定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는 구차제정의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선정의 깊이를 더 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반하여 보살 이상의 경지는 어떤 경지의 정이든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의 단계에서 가장 깊은 단계의 멸진정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지관균등의 색계 사선정이 지혜를 드러내게 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제사선이 가장 이상적인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이 깊어져 지의 쪽이 강하게 되면 마음의 작용이 거의 멈추어 그 자체로는 나무나 돌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지혜에 의하여 고

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관균등, 지관쌍운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처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색계사선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정도 바로 이 색계사선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선정이 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모든 선정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정根本定이라고도 합니다. ■



수행을 하면

용수 스님
세천코리아 명상센터



수행을 하면 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이 많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모자른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르지 않는 것을 알아봅니다. 수행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한 본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지혜로우지고 자비로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수행은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질 필요가 없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좋은 상황도 안 좋은 상황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상과 환영 같은 본질을 알아보게 됩니다. 수행은 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이 많아요.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다 왕처럼 살고 놀라운 편리와 안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행할 여유와 경향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지?' 종종 놀랍습니다.
자신도 세상도 다 팬찮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신과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없으면 대만족을 누리고 만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행의 기반입니다.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은 수행자의 의무입니다.
몸을 기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해탈로 가는 운반입니다.
행복의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성스러운 부처님을 모시는 사원입니다.
사원을 바르게,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른 음식과 운동으로 공양 올려야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해탈과 행복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This body is the basis of our practice.
It is important to keep it in optimal condition.
It is a duty of a practitioner to maintain good health.
On the basis of this body, we reach enlightenment.
It is the vehicle to liberation.
It is the measure of happiness.
It is our most important possession.
It is the temple of the divine Buddhanature.
We should keep this temple clean and proper.
We should make offerings with proper diet and exercise.
To neglect the body, is to neglect liberation and happiness. ♪



공중도덕

법경 정사

정각사주교
철학박사
동국대강사

청정한 계율 _ 58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공중도덕은 오늘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공중도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계를 생초변리계生草便利戒라고 한다. 또는 기생초상대소변계衆生草上大小便戒라고도 한다. 살아 있는 풀을 생초生草 또는 청초青草라 한다. 푸른 색은 곧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초青草는 살아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대소변 등을 보거나 버리게 되면 생초生草는 병들고 말라 죽게 되므로 살아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소변에 독한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근본 오계五戒나 십계十戒 가운데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범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비가 적어서 우기雨期에만 돌아나는 청초青草는 인도에서는 매우 귀한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자연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 계는 공중도덕의 내용이지만 자연환경의 보호라는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사분율』에서는 이 계율의 조문條文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비구니가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보면 바일제이다.

『꼴리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대변 혹은 소변 혹은 쓰레기, 잔반_{殘飯}-남은 밥을 청초_{清槽} 위에 버리거나 혹은 버리게 하면 바일제이다.

『사분율』에는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꼴리율』에는 '대소변 혹은 쓰레기, 잔반_{殘飯}을 버리거나 버리게 하면'이라고 하여 서로 달리 기술하고 있다.

인연담에도 차이가 있다. 『사분율』에 따르면, 비구니 정사 근처에 아름다운 초원이 있어서 거사들이 종종 와서 놀고 갔다. 이것이 비구니들의 좌선수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구니들은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원에 대소변을 뿌려 두었다.

거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초원 위에서 놀다가 몸과 의복을 더럽히게 되자 비구니들을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소변이 계속 쌓이게 되어 결국 풀이 말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재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계를 제정하였다.

『꼴리율』의 인연담에서는 비구니들의 쳇소 근처에 바라문 소유의 보리밭이 있었는데 비구니들이 거기에 대소변과 쓰레기, 잔반_{殘飯} 등을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바라문이 '비구니들이 우리 밭을 더럽혔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부처님께서 이 계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외의 여러 읊장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생초_{生草} 위에 더럽고 바르지 못한 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는 출가 수행자의 위의_{威儀}가 아니오, 바른 행도 아니다. 더구나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그지없는 일이거나 나아가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초변리계_{生草便利戒}의 인연담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는 생초변리계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비구니들의 정사 옆에 호결루초_{好結樓草}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줄기 길이가 길고 땅에 깔려 마디마다 뿌리가 있고 또 5월중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이 풀은 34cm 가량의 녹색 다년생 초목이며 낮은 들판 언덕 위 길가에 많이 핀다.

그런데 이것을 거사들이 좋아하여 때 없이 와서 앉고 누워 희희덕거리고 노래하고 범파를 불고 춤추고 놀므로 좌선에 매우 큰 장애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비구니들은 똥오줌을 그곳에 부어 냄새를 풍겼다.



이로 인해 그곳에 와서 앉거나 누웠던 거사들이 옷을 모두 버리고 또 풀과 꽃들이 독한 분뇨 때문에 말라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말썽이 많았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 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보면 바일제이라.”

이 외에도 대소변을 담 밖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함부로 버리니 지나가는 행인이 덮어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였다. 이 계가 불간기예계^{不看糞穢戒}이다. 살피지 않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말라는 계이다.

담 밖을 주의하지 않고 대소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불간기예계의 인연담은 『팔리율』의 경우, 비구니가 담 밖을 신경 쓰지 않고 변기의 소변을 담 밖으로 버렸는데, 때 마침 지나가던 바라문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바라문이 화가 나서 그 비구니의 쳐소^{廁所}를 태우려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 계를 제정되었다고 한다. 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팔리율』의 내용이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대변 혹은 소변, 쓰레기 혹은 남은 밥 [잔반]을 담 밖으로 버리거나 혹은 버리게 하면 바일제이다.

『사분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비구니가 밤에 용기 안에 대소변을 보고는 낮에 담 밖을 살피지 않고 버리면 바일제이다.

『오분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비구니가 오줌 물을 담장 밖으로 던지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 금 던지게 하면 바일제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사문^{沙門}으로서 올바른 행이 아니오 위의도 아니며 바른 행이 아니기에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자가 지켜야 할 금계^{禁戒}를 제정한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불법투기^{不法投棄}를 가리킨다.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일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과 같다. ┌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의 경계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월 20일 09시 현재 중국을 비롯한 29개 국가에서 75,710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2,124명(중국 확진 환자 74,576명/사망 2,118명)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확진 환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려니와, 보양과 보신이라는 명분으로 막행막식^{�行妄食}을 일삼아 온 우리 인간에 대한 자연의 응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과 전염병이라고 한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전쟁을 치려보지 못했으니 그 두려움이야 상상 속 막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과 맞닥뜨리다 보니 그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흑사병(페스트)으로 인해 중세 유럽 인구 3분의 1이 줄었고, 백년전쟁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걸어 나오는 듯하다.

어두운 바다에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처럼, 이렇듯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어려움이 닥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세상을 밝히는 것이 있다. 때로는 온몸으로,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를 돌보거나 자기가 얻은 공덕과 이익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며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利他}의 삶을 실천하는 많은 이들의 희생정신이 그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그렇다. 전염병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펼쳐진 의료진과 그들을 돋는 봉사자들의 헌신은



투쟁과도 같은 것이었다. 인적이 끊기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고립된 도시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이타의 삶이고 희망이었다.

우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701명을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에 실어 보내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을 평평 쏟았다는 정다운(38세) 영사의 후일담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1, 2차 전세기를 띠우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현지 교민들이 보여 준 노력도 첨보전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돼 도시 간, 도시 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우한 외곽의 봉쇄 도시에 있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전세기가 출발하는 우한까지 오게 하는 일이었다.

어렵사리 차를 구해 우한으로 향한 교민들은 주요 길목에 있는 공안의 검문소나 지역 주민들이 우한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에 발이 묶였다. 교민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길이 막힌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회로를 신속히 공유했다. 그래도 길이 막히면 한인회는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한 총영사관에서는 후베이성 정부에 우리 교민들의 이동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요청했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길을 막고 있는 도시의 외사관공실이나 공안에 직접 연락해 길을 열어주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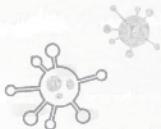
조처했다. 이렇게 뚫은 길이 최소 20여 곳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교민이 70여 명에 달했다. 우한에 거주하는 일부 교민들은 다른 도시에서 온 교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전세기 탑승을 돋기 위해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며 교민들을 실어 날랐다.

우리 국민 333명을 태운 마지막 전세기가 우한 텐히 공항을 이륙한 후, 교민 철수 업무 실무를 책임졌던 정다운 영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인회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단체 대화방에 동료 영사들과 현지인 직원들, 교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남긴 까닭이다.

넓은 마음으로 우한 교민들을 감싸 안은 아산과 진천 주민들도 존경 받아 마땅하다. 이를 역시 처음에는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을 반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에 분노가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우한 교민이 귀국하자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과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공포에 떨던 우리 국민 우한 교민들에게 따뜻한 품을 내줬다.

잘 계시다가 무탈하게 돌아가시리는 아산·진천 주민들의 응원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속속 담지하는 구호물품과 격려에 우한 교민들은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고,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위대한 대한민국 나의 조국에 감사한다는 말로 화답한다.



하지만 이런 감동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넘쳐난다.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매석에,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빗발친다.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 확진 환자가 늘었다, 기침 한 번에 십여 명이 동시에 감염된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이 밝히지 않은 환자가 더 있다 등등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통계, 합성사진까지 담긴 가짜 뉴스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생명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 자극적인 내용은 확산 속도가 더욱 빠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해당 음식점이나 가게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접촉자를 찾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도 혼선이 빚어진다.

확진 환자와 접촉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불필요한 차별이나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신고를 꺼리게 되므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지장이 생긴다.

인간의 삼업^{三業}은 몸과 입과 생각이 '선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에 따라 십선업^{十善業}과 십악업^{十惡業}으로 나뉜다. 나쁜 업을 짓는 열 가지의 과보 가운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살생^{殺生}과 투도^{偷盜}, 사음^{邪淫}이고, 입이 짓는 네 가지 업은 망어^{妄語}, 기어^{绮語}, 양설^{兩舌}, 악구^{惡口}이며,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탐심^{貪心}, 진심^{瞋恚心}, 치심^{癡心}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하여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는 행위는 악업을 짓는 일이다.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라는 『잡아함경』의 말씀이 어찌 불자들에만 국한된 것인가.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고통받을 때 서로 돋고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십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십선업인 바, 거짓말이나 이간질하는 말, 혐담, 함부로 내뱉는 말-입으로 짓는 이 네 가지 악업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볼 때다. ━





가정은 우리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인격이 성숙해가는 곳이고, 인류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건 없이 베풀고 드는 기본적인 보살의 생활을 배우는 곳이며, 가족에서 출발하여 일가 친족과 이웃에게 연결되는 출발점으로 최상의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과 지식은 학교에서 얻을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덕성과 지혜 품성은 가정교육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기초한 훌륭한 가정에서 재능과 인격의 원만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의 가정은 항상 부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부모는 자녀들이 지극히 높은 덕성과 아름답고 밝은 지혜와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믿으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수행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면 살아 있는 모든 시간은 바로 수행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가 신자들이 오로지 수행만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처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고 수행자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질과 성품이 다릅니다. 자신의 성품과 근기에 맞게 수행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인 새벽의 수행은 그날 하루를 즐겁고 보람되게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의 수행은 하루를 돌아켜 반성하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시간 뿐만 아니라 평소의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해 언제나 육바라밀행을 실천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가다듬는다면 매일매일의 생활은 복된 생활로 바뀔 것입니다.

불자들의 가정신행은 항상 불공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생들은 지은 업장이 두텁고 복덕이 얹어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온갖 장애와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복덕이 구족한 부처님께 의지해 가피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공 기도는 일방적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적 발원이어야 합니다. 불공 기도는 찬탄과 참회, 감사와 발원을 구체화 시키는 고도의 수행인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김대곤
시인

압축된 겨울은
비탈진 곳에서 누워 불어오는
바람에서부터 가슴을 부풀린다.

공손한 술 한잔 같은 비는
자욱 자욱 지면을 부드럽게 열고
푸름을 임태하는 초록을 두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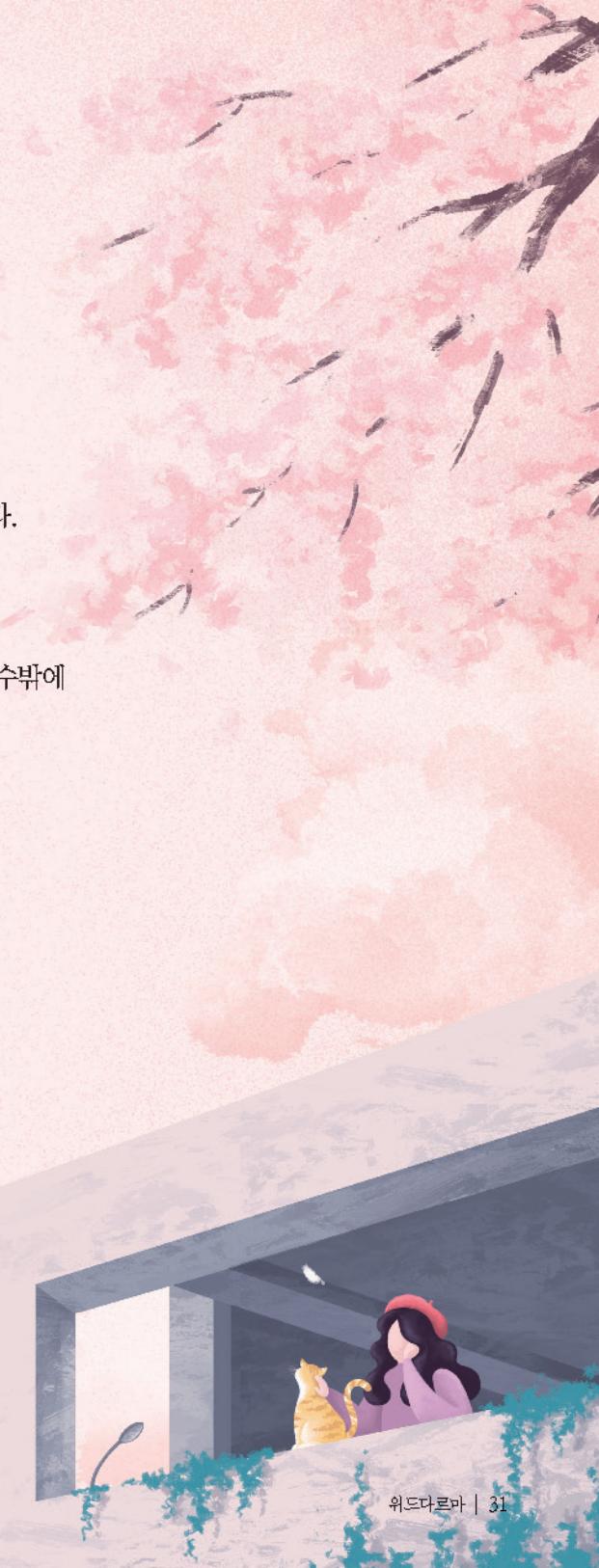
떠남과 보냄의 정점에서
분별을 잃은 계절의 시간
그 쿨력임은 수시로 터지지만

매번 이때쯤 행복하고야 마는
전쟁 같은 봄부림
매일이 빨라지고 있다.
어제가 도망가고 있다.

담벼락 아래
아직 테워지지 않은 그늘이
빼걱대면서 시침을 달아간다.

뻔히 알면서도
동그랗게만 나이테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봄을 짚적인다.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2

묘원화 전수
벽룡사



발표 지운 스님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한국 차명상 협회 이사장)

토론 월호 스님 (행불선원 선원장, BBC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진행자)

자비선 慈悲禪 명상은 고집멸도 善集滅道 사성제 四聖諦를 명상체계로 하고 신수심법 身至心法 사념처 四念處 수행을 수행법으로 한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사성제를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현실이고 우리는 출발점에서 괴로움의 해결이라는 목적지 終點涅槃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자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보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사념처 수행이란 네 가지 몸, 감각, 마음, 마음의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림 하는 것이다. 자비선 명상은 자비수관 慈悲手觀과 자비공관 慈悲空觀을 주축으로 한다. 자비수관은 몸깨침의 길이다. 상상 속에서 자비손으로 감로수를 행자의 머리 위에 부어 온몸을 자비감로수로 적신다.

이렇듯 몸의 영역에서 몸을 대상으로 자비손의 방편을 쓰면 집중이 생기므로 사마타이지만 자비손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몸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위빠사나이다.

따라서 자비수관은 신념처에 속하며, 자비손으로 몸의 현상을 알아차리고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으면 아옹找托 자비손 방편을 버리고 감각을 알아차리는 수념처 명상을 한다. 감각을 통해 무상, 고혹, 무아를 관찰하고 번뇌 망상이 사라져 무심無心으로 간다.

그것이 심념처의 마음의 영역이며 이 마음을 관찰하여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념처는 도제 道跡에서 수용해야 하는 요소들과 버려야 하는 요소들로서의 현상들을 가리키며 신수심념처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법을 관찰하면 이 법을 통해 열반에 이른다.



여기에 사무량심_{자비회사}을 회통시켜 보면, 자비손을 통해 자비심을 몸과 마음에 전달하고, 그 자비심은 긍정적 감정을 일깨워 부정적 감정인 탐욕과 분노는 줄이고 없애는 반면 자심_{慈悲心}을 증장시켜 슬픔과 남을 해치고자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연민(悲)을 키우고, 무아의 기쁨(喜)과 평정(捨)을 얻어서 열반으로 이르게 한다.

따라서 자비수관은 정념(알아차림)으로 삼법인을 관찰하고 삼해_{탈문}에 들어 열반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비공관은 마음 깨침의 길이다.

자비공관은 공성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 깨침이라 한다. 처음에는 공성을 관찰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사마타 명상을 한다. 이때 성취된 사마타의 선정에 의지하여 위빠사나 명상을 한다. 색수상행식_{色空想行識} 오온_{五蘊}을 분석하고 통찰하여 공성(법공法空)의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된다.

자비수관에서 사무량심의 역할은 중생을 위한 수행이므로 자비공관에서는 사무량심을 확장시켜 보리심_{慈悲心}을 기른다. 보리심은 수행자가 중생을 돋고자하는 열망과 중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돋기 위해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궁극적인 보리심의 또 다른 표현이 공성이다. 따라서 자비공관은 사무량심을 보리심으로 확장하여 무분별지_{無分別智}를 얻어 궁극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리심이란 명상 수행을 통해 대

비심을 일으켜 이타심으로 지각 있는 존재(유정有情)들을 돋고, 보다 효과적으로 돋기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그동안 살펴본 자비수관과 자비공관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정통 수행법이다. 따라서 잘못된 수행법이나 극단적인 수련법으로 인해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비선 명상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남방 빨리의 전통과 북방 산스크리트의 전통을 통합하였다. 또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고 심오하여 지면에는 실지 못했지만 여러 명상법들을 회통하는데 분명한 수행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중국의 선_# 전통의 십우도_{+四威} 경계가 자비공관에 포함되어 있다. ▲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익(李灝)

1681~1763

조선 후기 실학자



인재를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이미 얻은 뒤에는
그를 시험하고 쓰는 도리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得人固難,
而旣得之後,
則尤當審慎其試用之道矣

득인고난, 이기득지후, 즉우당심신기시용지도의

『승정원일기』 영조19년(1743) 윤4월 10일 기사 중에서



조선 영조 19년(1743) 윤4월 9일과 10일 이를에 걸쳐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다. 제술^{製述}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은 생원 출신의 이정중^{李廷重}으로, 그는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영조가 이정중이 장원으로 급제한 것에 대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자 신하들이 답하였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자 반인^{¶1} 중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균관은 문묘제향^{文廟祭享}을 지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쇠고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런 사람들을 반인이라 하는데, 이들이 모두 이정중이 과거에 수석으로 합격한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고시촌에서 오랜 세월 하숙하던 고시생이 마침내 고시에 합격한 셈이다.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였다니 온 고시촌이 다 같이 축하하는 게 당연한 일.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기가 막히다. 성균관 대사성이 아뢴 말이다.

“이 사람은 성균관에 여러 해 동안 거주하면서 반인들을 침학^{侵학}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기 때문에 반인들이 몹시 괴롭게 여겼는데, 그가 과거에 급제하자 반인 중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급제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침범하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인정이 이러하니 그 사람됨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중에 대한 이후의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크게 쓰이지는 못한 듯하다. 아랫사람들에게 저토록 인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잘될 리가 없었던 게 아닐까? 인성^{人性}이야 어떻든지 이른바 SKY에 들어가고 의대

법대만 가면 성공으로 여기고 플래카드를 걸며 온 집안과 온 마을이 나서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오늘날의 입시 풍속과 묘하게 겹쳐진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한 책임 의식과 윤리관 도덕관이 필요한 법.

그래도 영조 때는 저런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작은 위안을 삼아야 할까? ¶



해설 | 엄윤숙 프린랜서 작가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미스&미스터 트롯에 빠지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충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발행인
컬럼집 <배제와 포용> 저자



▣ 트롯 열풍

한동안은 트롯을 들으면 ‘아유 촌스러워’ 하며 취향이 저렴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트롯가수는 메인 무대에 설 기회도 없었고, 대중들의 환호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트롯가수는 음향 장비도 갖추어있지 않는 열악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지난해 미스트롯 방송을 한다는 예고를 했을 때도 ‘왜 저런 걸 하지?’ 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실패를 예단했었다. 그런데 웬걸 막상 뚜껑을 열자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생부부터 성인부 게다가 현역부까지 우리나라에 트롯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경연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트롯을 불렀다.

미스트롯은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쭉쭉 상승했다. 현장의 관객들에게 실력있는 경연자에게 버튼을 누르라는 역할을 주자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미스트롯 대중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PR^{Public Relation}에 불을 붙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게 하였다. 미스트롯은 ‘송가인’이라는 걸쭉한 가수를 탄생시켰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트롯에 빠지게 하였다. 음악에 관심이 없던 50~60세대들의 억눌린 낭만이 되살아났다. 촌스럽다고 외면했던 시절에 들었던 트롯을 자기도 모르게 용얼거리게 만들었다.

미스트롯의 성공으로 미스터트롯을 예상은 했지만 2020년 초부터 미스터트롯이 이렇게까지 강타를 날릴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트롯맨이 되기 위해 갖가지의 이유로 도전하여 무대에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롯이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유소년부의 정동원군은 노래도 잘 하지만 13살 소년이 폐암에 걸린 할아버지와 살게 된 사연은 감동이라는 알짜한 감정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낸 의지에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스펙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소년은 트롯가수가 꿈이기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미스터트롯에서 성인들을 누르고 자기 힘으로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미스터트롯이 아니였으면 결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보석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미스&미스터 트롯의 성공 요인은 제작진과 경영자들의 트롯에 대한 사랑과 노력 때문이다. 트롯을 사랑하기에 당당히 응모했고, 트롯을 사랑하기에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작진들은 트롯을 기존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눈에 다 보인다. 그런 노력들이 관객과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단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음악이 주는 위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언제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을지 몰라 불안해한다. 이럴 때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 트롯이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쓰다듬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이란 끈으로 이어주었다.

그저 트롯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소통하는 것이다. 부산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안부 전화를 하면 요즘은 미스터트롯 얘기만 한다.

마스터들보다 더 예리하게 분석하며 누가 송가인과 대적할 최고의 진~~진~~이 될 것인지를 예측한다. 형부와 자기는 1등 후보자가 달라서 내기를 걸었다며 신이 나있었다. 언니와 형부의 나이가 70대인 것을 보면 트롯의 낭만은 나이 제한이 없는 듯하다. 한 가정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트롯이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모 대기업 회장은 점심을 먹으며 ‘어제 미스터 트롯에서 봤는데’ 하며 얘기를 꺼내서 그 대화에 동참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서 프로그램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불교음악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음악은 청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며 인터넷으로 불교음악을 찾아 틀어놓고 일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도 생긴다.

명상, 힐링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두지 말고 그저 조용히 함께 하면 너무나도 편안하다. 종교음악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요즘의 종교음악은 집단적 의식과 체계 결집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타종교의 음악을 거부하게 만들지만 불교음악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불교음악은 사람을 위한 음악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불교음악의 선율이 은은히 내 가슴에 스며들고 있다. ♪



우리 서당

남혜 정사
단음사 주교



2005년 통리원 교무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420번 버스를 타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어렴풋이 서당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어라! 대치동 학원가에 웬 서당?’ 의아한 마음을 안고 총지사에 도착했다. 며칠 후 다시 420번 버스를 타고 대치동을 지나갈 때 서당이 있는지 유심히 지켜봤다.

정말 서당이 보였다. 대치동 상가 건물 2층에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우리서당’이라고 적힌 자그마한 간판이 분명하게 보였다.

그때부터 서당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의 서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서당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얼마 후 용기를 내어 서당에 들어가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수강료는 3개월에 42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교무 월급에 비해 큰 돈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첫 수업시간, 서당 선생님은 50대 초반으로 머리를 길게 묶었고 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르신 이외수 작가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철학과 학생들과 한의대 학생들이었고 수업과 목은 논어였다. 서당 선생님은 논어 수업보다는 세상 사는 법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다. 우리서당이라는 이름도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해서 우리서당이라고 지으셨다고 한다.

서당선생님은 우리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번씩 봉사활동을 하게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다. 2년 정도 함께 봉사활동을 했고 고아원, 요양병원, 목욕봉사, 청소봉사, 반찬배달 봉사 등 그때의 다양한 경험들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언젠가 서당 선생님이 나를 불러 이런 질문을 하셨다. “작은 막대기로 작은 북을 치는 것과, 작은 막대기로 큰 북을 치는 것과, 큰 막대기로 작은 북을 치는 것과, 큰 막대기로 큰 북을 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소리가 나느냐?” 나는 당연한 듯 대답했다.

“큰 막대기로 큰 북을 치는 것이 소리가 제일 큅니다.”

그때 서당 선생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앞으로 큰 막대기가 되어서 큰 북을 치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은 들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 막대기로 어떤 북을 치고 있으며 그 북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을까? 조금씩 조금씩 나를 다듬고 다듬어 이 세상을 위해 큰 북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처님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서원해본다.

어차피 이 몸도 이 세상에서 받은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취한 것이다. 무엇을 받았든, 얼마를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니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베품이 될 수 없다.

더 받으려기 보다 더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하고 또한 받은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모아 행하고 일이 다하면 세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어차피 세상에 남길 것은 없다. 육신의 소멸과 함께 이름에 붙여지는 명예나 칭송도 쓰러지고 만다. 이 삶,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최선의 행을 추구하다가 바람처럼 떠나면 그만이다.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이 우주 어딘가에 남겨지고 나에게서 나간 모든 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

꿈 한 점

별로 빛고

눈물 한 잎

파도로 빛고

몸에 묻은 빛 조각

깃털처럼 털어내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자



상대를 평가하는 대로 내 삶이 경험된다

법상 스님
원광사주지
다음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며, 상대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외부가 곧 내부이며, 상대방이 곧 나 자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업보의 법칙, 균형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등 무엇으로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원리는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외부를 향해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 자신을 향해 보내는 창조적 에너지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많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긍정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상대방을 욕하고 혐오하며 미워하는 것은 사실 곧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며 생각할 것인가 곧 내가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악성 맷글을 월 새 없이 달고, 운전 중에 끊임없이 옆 차를 향해 욕설을 쏟아붓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일 뿐이다. 그 악플이나 욕설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이 우주법계는 나의 맷글이나 욕설 하나로 인해 어두워지게 된다. 나의 말이나 글 하나가 누군가 한 사람을 괴롭혔다면, 그 것은 바로 이 우주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괴롭힌 것과 다르지 않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나 자신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사람이 곧 나 자신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욕설과 악플 하나는 우주법계를 스친 뒤에 다시 내게로 되

돌아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짓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인다면, 스스로 자신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고 진실하며 평화롭게 보인다면 자신의 행복과 평화는 실현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왜 그럴까? 너와 나라는 분별이나 나님은 본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처럼 보이고, '상대방'처럼 보이며, 남의 일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외부인 것처럼 보일 뿐,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투영되어져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삼계유식이며, 만법유심이라는 말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는 필터를 지운 그 필터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걸려지게 마련이다. 그 필터는 외부에 속한 것이 아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며, 종교인들을 욕하고, 특히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바로 그 욕이라는 화살을 남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인 자기 스스로에게 결국은 쏘아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무엇이 연습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 비판 뒤에 상대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이 바탕되어 있다면, 그

비판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 그 비판의 근원에는 사랑과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 있기에,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게되면 자기 내면에 사랑과 자비심이 연습된다. 그러나 비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비판 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비난하게 된다면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증오, 미움, 화, 짜증이 연습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외부를 향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아무리 밉거나, 이기적이거나, 짜증스런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열을 내면서 증오하고 심판하고 미워하지 말라. 상대방에 대한 심판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공정적으로 바꾸면 내 삶이 공정적으로 바뀌고,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내 삶에 부정성이 만들어지지만,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의 참된 진실에 이를 것이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꽃향기 가득한 만화방초

자성 전수
법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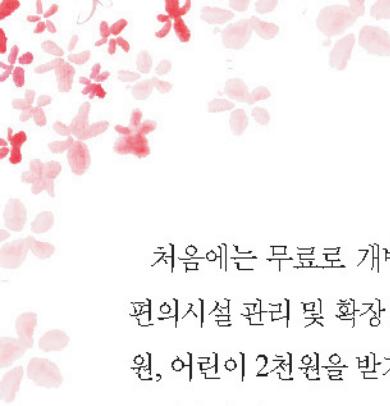
경남 고성에 위치한 꽃과 향기가 가득한 ‘만화방초’라는 신비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화방초는 ‘온갖 꽃들과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6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에 녹차밭만 2만평에 달하고 700여 종의 야생식물과 다양한 곤충들의 서식처로 작은 연못이 있고 신혼부부들의 웨딩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개인정원입니다.

사람의 발길을 거부한지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새벽안개와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는 녹차밭과 철따라 피고 지는 수많은 꽃들이 무성한 신비로운 정원이 만화방초이다.

만화방초의 주인장은 오랜 외국 생활 끝에 우리의 옛것이 그립고 어릴 적 떠난 고향이 그리워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심한 끝에 만화방초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전부터 가꾸어온 만화방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2007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고성의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방문객이 점점 많아지고 화장실과 편의시설 관리 및 확장 비용 문제로 2018년부터 유료화하여 어른 3천 원, 어린이 2천원을 받기로 하고 입구에 자율 요금통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유료화로 주인장은 더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만화방초는 사계절의 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봄이면 제일 먼저 복수초를 시작으로 매화와 벚꽃이 만개를 하고 여름이면 수국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수국에 비해 만화방초의 수국은 단연 으뜸이고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볼 수 있는 '벨라의 정원'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꽃무릇이 장관을 이룹니다. 꽃무릇(수선화과)은 봄에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가 여름에 잎이 말라버린 다음 가을에 꽂대가 일제히 올라와 꽃을 피우는 꽃으로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통 애기 동백꽃이 천지를 이릅니다. 이 밖에도 만화방초에는 음료수 캔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세워놓은 '바람개비 쉼터', 푸른 녹차 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억의 동산', 편백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잠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편백숲', 주인장이 이름붙인 '한달폭포'까지 대자연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힐링 장소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만화방초를 들려보는 데는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꽃이 피고 봄이오는 계절 3월에 가족들과 함께 고성군의 대표 축제 장소중의 하나인 만화방초에서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시고 숲속의 좋은 기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점이 이어져 선이 되다

네프롤레피스-Sword fern



순간이 모여 인생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라도 있으면 틈틈이 밟으며 쉬어 가기라도 할 텐데 인생이란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그 냥 몸을 맡긴 채 지나가는 경치를 바라볼 뿐입니다.

“와, 멋있다!”

때로는 감탄하며 다시 보고 싶은 경치도 있지만, 고개를 돌려 보면 이미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추억, 또는 과거라는 이름을 단 채로 말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현재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현재라고 느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금세 과거로 바뀌니까요.

이태용
원예 교육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순간의 ‘점’들이 이어져 하나의 ‘선’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 제법 길어 보이는 선도 시공을 초월한 광대한 역사 속에서 보면 실은 하나의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눈에는 바람에 훌날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 공룡보다 더 오래된 옛날 옛적 식물

고사리과 식물이 지구에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고사리로 대표되는 양치식물이 지구에 등장한 게 고생대 석탄기이고, 공룡으로 대표되는 거대 파충류가 등장한 것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입니다. 고사리의 조상은 공룡보다 최소한 4천만 년은 먼저 지구에 등장한 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알 수 없는 지구의 비밀들, 화분 속 조그만 고사리는 그 비밀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 옛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흔히 ‘네프롤레피스 *Neurolepis*’라고 부르는 식물은 엄밀히 따지자면 양치식물 고사리목 넉줄고사리과 줄고사리속에 포함된 식물 전부를 뜻합니다. 꽃시장에서 볼 수 있는 네프롤레피스에는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 보스톤고사리와 테디주니어, 그리고 더피 정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대칭으로 자리 잡은 일의 배열이나 방사상으로 뻗은 줄기의 모습이 꽤나 매력적입니다. 네프롤레피스는 줄기가 위로 뻗지 않고 옆으로 펴지며 자립니다. 대개 이런 모양으로 자라는 식물을 로제트형 식물이라고 부르지요.

길가에서 흔히 민들레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줄기의 아랫부분에 나 있는 편평하게 생긴 잎들이 땅바닥에 바싹 붙어서 자립니다. 네프롤레피스를 키우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는 화분에 만 심기보다는 공중이나 벽에 걸어 놓는 화분에 심어도 꽤 예쁩니다.

◆ 티끌이 모여 이루어 내는 이야기

꽃시장에 가면 사시사철 언제나 네프롤레피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나 아이에게 무언가 삶에 대한 조언을 해 주고 싶을 때 마음에 드는 네프롤레피스 화분을 하나 골라 보세요. 그리고 집에 테려와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걸어 보는 겁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옛날이야기 하나만 해 줄래?”

“옛날에 너희랑 같이 살았던 동물들 이야기 좀 해 줄래?”

그려고는 네프롤레피스가 말을 꺼낼 때까지 끈기를 갖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혹시 아니요? 몇 천만 년 전 원시시대의 하늘과 땅은 어떤 빛깔이었는지, 숲속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공룡들을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실타래의 실이 풀리듯 네프롤레피스의 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이야기 보따리를 푸느라 정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입을 안 열 수도 있겠지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럴때는 평 대신 닭, 바로 우리 가족의 사진첩을 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 모습까지 찬찬히 아주 찬찬히, 어느 새 그 속에서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까지도요. 비록 우리 인생은 티끌처럼 작은 점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점이 있기에 인류 역사가 이어지고 지구의 역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 옛날 우리의 수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듯, 우리 어른들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새 우리 아이들도 그 삶을 닮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도 꽤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기 허물을 모르는 사람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의 흥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성을 잘 내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경솔히 하는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은 성을 내면서 방에 들어가 그를 움켜잡고는

“이 어리석고 나쁜 사람아” 하면서 주먹으로 때렸다.

옆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는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 성을 잘 내며 경솔했기에 이 사람이 나를 흥보는가. 그래서 때리는 것이다.”

옆의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바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고 미혹함을 더욱 더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 거칠고 방탕하다가 남의 꾸지람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중거를 끌어와 스스로 깨끗하다고 변명한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여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1부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교도



차는 생산국마다 기후와 토양, 만드는 방법 등이 다르기에 세계적으로 다양한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차 풍습도 다양하여 이번에는 차를 즐겨 마시는 몇 나라들의 차 풍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인도나 중국, 스리랑카에서 수입한 홍차를 가공하여 블랜딩하여 자국의 문화로 만

들고 수출까지 하며 세계 홍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티타임’이라는 말이 영국에서 만들어 졌고 그만큼 영국인들은 차를 많이 마시고 사교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차를 마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루 중 차를 마시는 시간에 따라, 차를 누구와 마시는지에 따라, 함께 먹는 간식에 따라 티타임을 정해 마셨으며 그 중에서 어얼리 티(early tea, 오전 6시)에 마시는 차만큼은 남편이 부인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홍차는 포트에 끓는 물을 넣어 데운 후 물을 버리고 여기에 홍차를 사람 수 만큼 넣고 1스푼 더 넣은 다소 찐하게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혹은 홍차에 찬 우유를 넣어 맵은 맛을 감소시킨 뒤에 부드럽게 마시기도 합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은 보통 2~5분 정도로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나 인도 사람들과 달리 영국인들은 홍차에 레몬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손님에게 차 대접을 할 때 레몬이 함께 나오면 오래되었거나 품질이 떨어진 차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 영국에 차가 들어왔던 시기에는 차도 설탕도 비싼 수입품 이었기에 부와 사치의 상징의 의미가 되기도 했던 차 문화, 지금은 많은 연구와 다양한 블랜딩 그리고 여러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으로 전 세계 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 차는 17세기 몽고 사절단에 의해 약용으로 전해지던 것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또한 홍 차의 대소비국(1년동안 1인당 약 550잔)이지만 차 풍습만은 조금 독 특이하다고 합니다. 과거 러시아 가정의 식탁에는 항상 사모바르(러 시아에서 물을 끓이는데 쓰이는 금속제품 또는 도자기 제품)라는 주 전자와 포트, 찻잔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포트에 진한 홍차를 준비하고 찻잔에 홍차를 넣은 뒤 사모바르 의 꼭지를 틀어 뜨거운 물을 부어 농도를 조절해 가며 마셨으며 차를 내어 놓을 때는 일반적으로 잼을 같이 내어 놓는다고 합니다.

차에 잼을 넣어 먹거나 차를 마시는 중에 떠먹거나 쿠키에 잼을 발 라 같이 먹기도 하고 잼이 없을 때는 벌꿀을 준비하거나 각설탕을 입 안에 넣어 차와 마시거나 각설탕을 차에 적셔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모바르를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러 시아인에게 사모바르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해발이 3500m의 고원지대에서 생활하는 티베트인들은 하루의 양 식은 없어도 차 없이는 못산다고 할 만큼 차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티베트의 대표적인 수태차는 세계 차문화에서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운남지방에서 생산되는 찻잎을 쪄서 압축시켜 만든 긴압차를 만들고 이것을 잘라 끓인 물에 버터, 소금, 참깨 등을 넣어 만든 차가 티베트의 전통차인 바로 수유차입니다. 642년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티베트 왕에게 시집와 손님들에게 대접한 차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몽골

몽골인은 세계에서 육류를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중 하나로 고기와 유제품, 밀을 주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채소의 섭취량이 많지 않아 차를 마심으로써 비타민도 보급하고 수분도 섭취한다고 합니다.

고원지대에서 생활하는 몽골인은 유목생활을 하면서 유제품을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긴압차를 잘라 솔에 넣고 끓인 후 찻잎을 거르고 난 다음 소금과 양젖을 넣어 마시는데 이것을 수태차라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수태차에 양이나 염소고기를 넣어 삶아 먹기도 하는데 이는 차가 육류의 특이한 냄새와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법일 정사
수인사주교



한 사나이가 기차로 여행을 했다. 그는 완벽한 여자를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한 것이다.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완벽하지 못한 여자와의 결혼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온 세상을 완벽한 여자를 찾아 여행을 했다. 마침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친구가 찾아왔다. “자네 결국 완벽한 여자를 찾는데 평생을 허비했군. 이제 나이도 70이지. 그런데 완벽한 여자가 단 한 명도 없던가?”

“꼭 한 명 있었다네. 우연히 정말 완벽한 여자를 하나 만났었지.”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래. 어찌되었나”

“어떻게 되긴. 그녀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군. 그래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제갈량과 홍타시

제갈량은 출전 전에 군기가 부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번 전장에서는 지겠구나.’ 결국, 전장에서 대패하고 병을 얻어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다.

홍타시는 출전에 앞서 아침 밥상이 부러지면서 밥을 못 먹게되었다. ‘아 - 이 전장은 승리하겠구나. 명나라 황궁의 금으로 만든 밥상으로 밥 먹으라는 신의 계시다.’ 그는 부하들을 독려해 전장에서 큰 승리를 했다. ━



2020년 2월이다. 내일부터는 월초불공 기간이다. 마음이 무겁다. 나에게 깊은 숙제가 생긴 것이다. 일주일을 어떤 서원을 세워서 불공을 하나! 이 무게가 일상을 무기력하게 한다. 연재글도 써야 하고 사원행사에도 손을 모아야 하는데……

부처님께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며칠 전부터 시간만 나면 기도를 했다. 무슨 서원을 세우지도 않고 평소처럼 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우선이라 아무것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늘은 전수님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수님이 시간을 내어 주신거지만…… 참 이상하지 않은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는 게!

누군가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는 설법을 펼친다는 게 참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난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 말고 다른 전수님들과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없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 혼히들 말하는 이야기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객관적인 사고가 되어간다. 그리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아간다. 내 마음의 부처가 깨어나고 부처에게 가는 것이다. 논리적인 생각과 비논리적인 현실에서 자신의 선택을 찾아간다. 부처의 세계는 중생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 같다한다. 정진을 통해서 그 고리의 힘이 연결되고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그 역할 속에 스승님들이 계시는 것 같다. 다양한 사원활동을 통해서 난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들을 알아간다. 감사하게도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변화 하는걸 느낀다. 내가 부처님 세계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다. 올 새해불공을 마치고 꾸었던 꿈이 변해간다는 것인데 좋은 결과로 변한다고 꿈해몽을 어머니가 해주셨다.

참 좋은 총지종 식구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스승님들… 올 한해도 난 그분들 덕분에 발전하리라 생각하니 환희해진다. ━





너무도 오랜만에 열광하게 된 드라마가 생겼다. 스토브리그^{stove league}이다. 스토브는 난로라는 뜻으로 프로야구 겨울철 시즌 오프시기에 선수의 획득이나 이동 등을 둘러싸고 팀 사이에 벌어지는 동향을 뜻한다.

이 드라마는 야구를 몰라도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바로 ‘백승수’라는 인물의 돌직구 리더 모습에 매료 된 것이다.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백승수 단장의 명대사는 직장인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각자가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평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지게 됩니다.”

“해웠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왜 야근만 하고 야근수당 신청은 안 합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자기 권리는 쟁기세요.”

야구단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직장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야구선수 조차도 월급쟁이로 표현되면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보여주었다. 만년 꿀찌팀인 ‘드림즈’의 신임 단장으로 부임한 백승수 단장이 남들이 하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모기업과의 갈등도 겪고, 설득력 있는 PT, 무덤덤한 속에서 팀원들을 쟁기는 모습을 보면서 백승수를 통해서 희열감을 느낀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개성 있는 연기들이 자꾸 TV 앞으로 모여들게 만든 것 같다.

난부한 PPL과 조개지는 편성으로 인해 드라마를 집중할 수 없게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만화 같은 전개와 역전 만루 홈런 같은 해피엔딩의 마지막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우리 삶에도 작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본다. ━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 증금강신証金剛身, 불신원만관佛身圓滿觀④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오상성신관의 세 번째 관법인 성금강심成金剛心에서 우리의 지혜 광명은 견고하고 항상 불변함과 동시에, 미망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이 양쪽 방면을 상징하는 금강저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강관을 통해 음승갈발절라(唵僧喝跋折羅omśamhāra음, 삼하라)라는 밀어를 송하는 동시에 법계대의 금강이 점차적으로 수축하여 자신의 신장이 되고, 다시 십월륜心月輪안에 들어간다고 본다.

이렇듯 이 광금강관과 염금강관이란 견고함과 부수어 깨는 양쪽 방면을 갖추는 보리심의 당체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당체 외에 있지 않는 이른바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묘리를 보기 위한 사관[●][●]¹⁾이 된다.

오상성신관의 네 번째 증금강신証金剛身이란 곧 우리 정신이 견고와 부수어 깨는 양쪽 방면을 갖추고 있는 보리심의 본질인 동시에, 이 육체 또한 보리심의 표현으로 본다.

육체 일신-[●] 또한 월륜중의 금강을 상징하는 본체임과 동시에, 온갖 일체여래의 변화신의 본성도 우리의 육신과 동일체성으로 결코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일신에 일체 여래의 금강신의 체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묘리를 보기 위해 음부일라달마구함(唵囉日囉怛麼俱哈omvajrātmako'ha 음 바즈라테마코함)이라는 밀어를 송하며 허공에 편만해지는 일체여래의 신구심身口心의 묘업妙業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일체가 된다.

환연하면 자신이 즉 부처가 된다고 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상함과 동시에 ‘나는 여전히 범부로써 아직 부처님 같은 원만한 상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불신원만관佛身圓滿觀을 이루는 것이다. 이 불신원만佛身圓滿이란 부처님의 32상 80종호와 같은 수승한 상은 모두 일체여래와 동체인 우리의 일신-[●] 위에 갖추는 것을 깊게 자각하기 위한 관법으로, 음야타살부달타게다살달타함唵也他薩囉怛他揭多薩怛他哈(om yathā sarva-tathāgatastathā'ha 음, 야타 사르와-타타가타스 타타함)이라는 밀어를 송하고 자기 일신에 부처의 상호를 모두 원만구족하게 관상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오상성신관은 실[●]과 같이 자기의 마음의 본성에 통달함과 동시에 자기 몸이 즉 부처(自身卽佛)라는 자각을 고조시키고, 이 대자각 위에서 부처의 신구의身口心 삼밀한 묘업을 일신에 실현하기 위한 관법으로 그 관법이 『金剛頂眞實攝經(금강정진실섭경)』의 본론 초에 설파되고 있다. ━

1) 현상계의 구체적 사물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

아수라

阿
修
羅

阿 언덕 - 아 修 낚을 - 수
羅 그물 - 라, 벌일 - 라, 그물 - 나

① 육도 팔부중의 하나로 싸움을 일삼는

나쁜 귀신.

②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섯인 귀신.

항상 제석천과 싸움을 벌인다.

'아수라'는 범어 Asura를 음역한 말로 수라 諸羅라고도 하며 또 아소라 阿素羅, 아수루 阿須盧이라고도 하는 '추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생이 윤회하는 천 天, 인 人, 아수라 阿修羅, 아귀 餓鬼, 축생 畜生, 지옥 地獄 가운데 한 곳을 가리기도 한다.

아수라는 본래 불법 佛法을 수호하는 8명의 수호신인 팔부중 八部衆의 하나로 고대 인도신화에 나오는 선신 善神이었는데 후에 하늘과 싸우면서 악신 惡神이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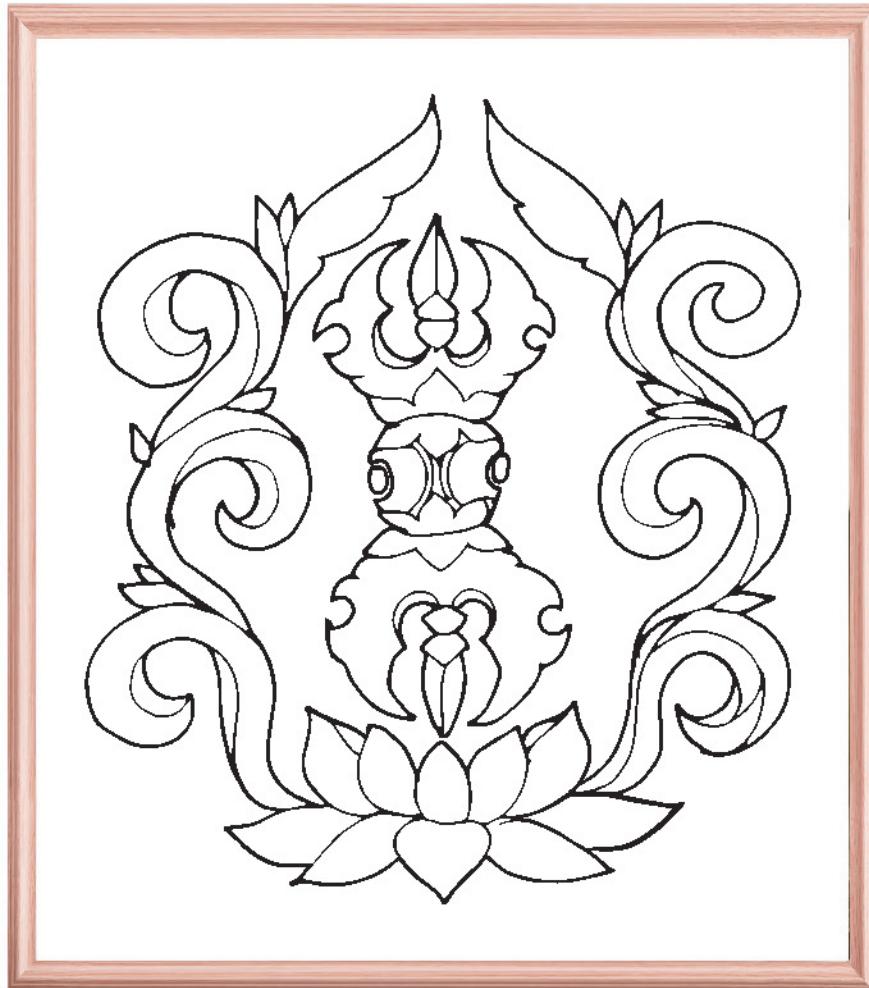
'아수라'는 대해의 밑에 거대한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용맹한 신이다. 천상의 신에 도전해 때로는 승리하는 때도 있는데 그 기세가 대단하다. 겉잡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아수라처럼'이라는 표현도 하고, 혼잡이 극한 곳을 '아수라장이 되었다'고도 한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비슈누신의 원반에 맞아 피를 흘린 아수라들이 공격을 당해 아수라들의 시체가 산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나온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됐다. 때문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흐트러진 현장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수라 阿修羅를 물리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때 악의 상징인 아수라 阿修羅는 발을 못 붙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 阿修羅場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하늘의 신 제석천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밀했다고 한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그리하면 싸움터가 아수라의 장 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유명신



▲ 인천 자성 정사



▲ 인천 김현숙



▲ 포항 김지예



▲ 울산 이유정



▲ 부산 장혜선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조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매년 양력
신년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고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오국가·오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오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泰民安·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흉야오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조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령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승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번길 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릉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령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학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개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성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점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감	김덕원	김도연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정호	안한수
양진운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정화연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경림	한미영	한명희	허지웅



-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49(2020)년 3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의
발 행 불교총지종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봄은 많은 매력을 가진 계절입니다.
새롭게 싹이 트기도 하고,
덥지 않은 따뜻한 온기로
마음까지 알차게
만들어 주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애태계 기다리던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설렙니다.

그러나, 이번 봄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네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소소한 봄을 만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번 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강하니깐.

3월호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두려우랴.

- 법구경 -